대학원생 세미나 14.02.06

리딩: Lyotard, Jean-Franç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Vol. 10. U of Minnesota Press, 1984.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 발제: 김은지

서사지식/과학지식의 구분? 쿤. 1962년 책에서 나옴. 정상과학의 정당화와 다름. 과학 내의 규칙이 과학자들이 구성문이라고 봄. 리오타르는 시대적 변화의 컨텍스트에 놓고 정당화의 과정을 면밀하게 보았다. 언어분석을 통한 쿤 적인 시대. 정당화의 dynamic에 대한 연구?.

송지예: 서사지식/과학지식을 구분한 것 자체 근대적 지식임. 과학지식이 서사적인 지식 안에 포함된다. 쿤 적으로 말한 과학발전의 서사지식의 속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 과학지식도 서사지식과 구분되지 않는다. 과학지식에 대한 회의가 포스트모던의 기조이다. 규범과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주장이 규범적으로 진리 추구에서의 지시언어와 규범언어가 합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학자가 현실에 대해서 규범적인 것까지 포함한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핵 분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핵 발전소의 용도로 쓰여야 하는지. 과학자로서의 위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다양한 지식을 짜는데 있어서의 메타지식적 발화를 해야 하는지?

김은지: 대서사/소서사의 구분? 상황으로 봄. 근대는 서사지식이 전달. 현재의 지식을. 소서사 여야한다라는 것인지 현재 소서사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인지?

이재현: 나누어야 하는 것. 탈근대의 입장. 기술적으로 포스트모던의 조건은 -하다이지 소서사를 이렇게 써야 한다는 아닌 듯. 분석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김은지: Postmodern condition. 조건들이 아니라 상태인가?

이재현: 물적 상태인 듯. 포스트모던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에서 주장이 나온 듯.

최인호: language game이라고 하면서 social bound를 논의. 맑시즘 비판적. 여러 출구를 찾다가 여러 시도들이 다 실패되고, 사회가 기계화되는 것. 과학이 큰 영향을 미쳤고, 여러 knowledge에 영향을 끼침. 일정하게 구분된 언어게임들인데, 언어게임의 규칙 자체가 social bound이다. 그 것을 벗어나는 사고를 하기 어려워짐. 주체가 그 안에서 구성되는 것인데, 본인이 보기엔 denotative game만 함. 이를 넘어서는 게임, modern science임. 근대과학은 효율성, 국가 뒤의 권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만 만들어짐. 그렇게 만들어졌음. 그 뒤의 효과, 정당화는 denotative game이 아니라 처방적 게임임. 이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 Postmodern condition이 되면서 여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은지: 포스트모던의 책 자체는 왜 어렵나?

최인호: 계속 정당화 이야기를 하는데 knowledge가 갖는 정당성 자체. Kuhn, 과학은 절대적 진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규칙, 체계가 있고 그 안에서 구성된다고 함. 일원적 지식이 아님. 지식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 Meta prescriptive knowledge까지 해야 하는데. 서구 사람들도 오랜 고민을 한 듯. 맑시즘과의 관계도 계속 이야기. Liberation narrative가 있었는데 그 것이 안되었다는 것. 다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푸코 등이 나옴. 이것이 아무리 해방의 실천전략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정당화하더라도 실패한다. 결국 개인들은 다 해방의 주체가 되지 않고 사회 부품처럼 되어 있는 것..

송지예: 사회적 유대의 성격에서 논의하는 것. Postmodern적 관점이라는 것이 다른 것. 게임규칙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

최인호: 모든 knowledge들이 있는데, 지식을 정당화시켜주는 내러티브들이 다 깨짐. 새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판적인 것, 진보적인 내러티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것인가? 뒤에선 메타규범 발화. 언어 게임 사이의 소통, 넘나드는 메타언어가 없음. 다양한 파편으로 나뉘어져서 비판하는 사회총체적인 다양한 언어게임. 그것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하는가?

최인호: 직관적인 감으로 느끼기엔 우리가 같인 language game이 있고, 그 안에 정당화하는 내러티브가 있었음.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학이라는 것. 그 자체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좋은 것임. Prescript한 것을 denotative하게 정당화해왔음. 결론도 그러함. 다양한 이질적 정보들에 대해 people들이 접근할 경로를 줘서 언어게임에 한정되지 않게 한정하는 것인가? 영어책의 서문에서는 언어,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사람인 듯. 서론을 쓴 사람은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뭔가 political program이 있어서 action이 있어야 한다고 봄. 맑시즘으로 시작했지만 그 대안으로 상상력, 대안을 논의하는 사람에서 사회비판의 동력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 아닌가.

맑시즘은 실천 이데올로기임. 과학에 기초하지만 계급투쟁을 거쳐 감. Political action을 중시하는 이론인데, 리오타르는 그것 자체가 liberation narrative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것을 접어두고 narrative를 새롭게 구사하는 방식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

이재현: 서문에서 Jameson이 하버마스와 대비.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주의의 끝자락, 구조적 총체성을 인정. 변증법적 논리 가졌는데 리오타르는 포스트 마르크스 적이다.

김은지: 서사지식/과학지식의 차이성의 우열 가정? 서사지식이 유용하다? 서사지식의 특징, 거대담론, 근대적 통합성, 합의.

옥창준: 1979년에 저술된 것 서구 지식계의 위기론의 영향이 큼. 소통이 안 되는 현상 자체를 논의하는 듯.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2008년에서 어려움. 그 당시 유행한 것은 다원주의임. 너의 말도 맞지만 아이들 말도 맞다.

리오타르, 허무주의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티도 그런 느낌이 있음. 그들의 논리 자체가 나중엔 허무주의, 지적 상대주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90년대 등 문화운동 등이 있었지만 문화 소비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임.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문제. 결국 세미나의 방식도 일정한 답을 찾아간 식으로 가정하는 듯. 하버마스 식 이상으로 가는데, 결국 세미나. 여러 언어게임을 경험하다 가는 것인가? 공부 하는 방식, 이미 리오타르적으로 대체된 것 같다. 서구사회의 60년대의 운동, 국제정치학에서는 1979년 Waltz는 근대국제정치학을 완성. 시차 자체가 재미있다. 늦구나, post modern으로 가고 있었는데 90년대, Waltz, theory등을 냄.

최인호: 둥둥 떠 다니는 narrative. 실증주의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나? 기반이 튼튼한 이야기인가? 사변철학이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도 있음. Narrative가 있는 것 같긴 함. 대충 통하는 것이 있음. 그것을 튼튼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옥창준: 이것이 하버마스 식으로 해결되는 것인가? 둘의 소통방식이 다른 것인지? 북-미 간? 이미 적인데.. 대화하는 글 쓰는 방식이 다름. 리오타르식으로 보면 다름. 이는 language game이 있음. 데리다 식은 글쓰기 방식, 정당화하는 방식도 다름. 다른 방식으로 서술. 국제정치학에서는 다른 데서는 잘 안되어 있지만 기존의 이론서, case study와 다르게 narrative를 서술함. 서사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국제정치 책도 읽어보면 좋을 듯.

송지예: IR, 현실주의, 자유주의의 등장처럼 큐비즘, postmodernism. 시대정신에 따라서 나눈 것. IR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그 시대의 산물인데, 지금 평면적으로 보는 것 같음. 그 시대에 나온 철학을 읽는 것이고, 현대의 철학도 무슨 사회상에 관심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